

CEO, 경쟁심화 · 규제강화가 문제!

미국, 인재손실 및 통화불안정도 위협요소 ... 주식은 마이너 요소

미국의 대기업 CEO들은 경기여건 향상으로 수익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경쟁심화 및 규제강화 등을 위협요소로 제기하고 있다.

CEO의 약 46%는 경쟁심화를 최대 위협요소로 꼽았으며 41%는 규제강화를, 34%는 인재손실을, 33%는 통화불안정이라고 대답했다. 흥미롭게도 CEO들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위협요소로 보고 있지 않았는데, 45% 가량은 마이너 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26%는 전혀 위협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.

사업성장 위협요인

(단위: %)

구 분	위협요소 아님	마이너스 요소	상당한 위협요인	가장 큰 위협요인
주식시장 변동	26	45	20	3
테 러	16	41	30	10
통 화 불 안정	18	33	33	15
규 제 강 화	16	30	41	18
명 예 관 련 리 스 크	25	36	25	10
기 업 관 리	30	41	21	5
디 플 레 이 션	22	35	29	11
신 기 술 등 장	33	38	21	6
경 쟁 심 화	10	25	46	17
인 재 손 실	16	37	34	11
자 본 코 스톱	24	40	26	8

자료) PricewaterhouseCoopers

전반적으로 CEO들은 위험수준(Risk of Level)이 2003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응답자의 49%는 2003년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, 또 다른 49%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. 또 앞으로 3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45%가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46%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. 소비재 및 공업 분야 CEO들은 각각 48%, 44% 비율로 나타났다.

위험인식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재 사업여건이 CEO들의 위험대처에 있어서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서 11%는 <그렇다>, 46%는 <다소 그렇다>라고 대답한 반면, 41%는 리스크와 기업가주의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주력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소비재 및 공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.

<화학저널 2004/03/29>